

홈 > 뉴스 > 기획 > 제주 근대 유산의 길을 걷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수로 지금와도 혀를 내두를 일"

이성무 중문초등교 교장 인터뷰

데스크승인 2013.04.07 좌동철 기자 | roots@jejunews.com



중문 토박이로 중문초등학교 교장을 역임한 이성무씨(71)가 1996년 펴낸 중문향토지 '불란지야 불싸지라(반딧불이야 불켜져라)'에는 각종 사료와 증언을 토대로 천제연 관개수로를 소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천제연의 풍부한 물을 이용하려고 무단히 애를 썼다. 하지만 암반지대인데다 울창한 난대림 및 덩굴로 인해 물길을 내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

천제연에는 양쪽으로 3개의 물길이 있다. 동쪽에는 웃골과 알골, 서쪽에는 셋골 수로가 있는데 셋골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

섯골은 1883년 색달리에 사는 김천총씨가 착공은 했으나 자본이 부족해 대정군수를 지낸 송경연 선생이 5년 간의 공사 끝에 1887년 완공했다. 이 구간은 개여물캐(현재 퍼시픽랜드 일대)에 물을 대어 논을 만들었다.

이성무씨는 “채구석 군수보다 20년을 앞서 첫 수로를 개척한 것이 셋골”이라며 “셋골 수로 공사 때부터 바위에 장작불을 때고 평창과 수축의 원리로 암반을 깨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셋골 수로는 흔적이 거의 남이 있지 않고, 관련 사료가 부족해 후대로부터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맨 먼저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논이 생기면서 지주와 소작농은 7대 3 또는 6대 4 비율로 생산된 쌀을 나눠 가졌다. 논 주인은 추수 때가 되면 일을 앓고도 많은 쌀을 거둬갔다.

반면 소작농은 명절이나 제사 때 조상에게 쌀밥을 올리기 위해 힘든 농사를 지어야 했다.

보리밥도 먹기 힘든 시절, 쌀은 매우 귀한 곡식으로 ‘곤밥’이라 불려졌다.

이씨는 “천제연 계곡 안은 울창한 난대림지대에서 사람들은 접근하기조차 힘들었다”며 “변변한 장비도 없이 단단한 암반을 뚫고 물골을 낸 것은 지금에 와서도 혀를 내두르게 된다”고 밝혔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채구석 대정군수는?>

1850년 한림리에서 태어났다. 30세인 1879년 식년 소과에 2등으로 합격했다. 1893년 제주판관으로 부임했고, 이듬해 흥년이 들자 봉급을 털어 굶주린 백성을 돌보았다.

1898년 화전민 방성칠 등이 가혹한 세금에 저항해 난을 일으켰을 때 그 책임을 지고 면직되었다가 다시 대정군수로 부임했다.

1901년 이재수의 난이 일어나자 민란군과 천주교도 사이의 유혈 충돌을 막기 위해 노력했으나, 프랑스의 압력으로 파면되고 3년간 금고생활을 했다. 이후 중문에 거주하면서 천제연폭포의 물길

을 끌어와 논을 개간했다.

통훈대부 대정군수 채구석 기적비(通訓大夫 大靜郡守 蔡龜石 紀蹟碑)는 담주(畓主)들이 그의 업적을 기려 1958년 천제연폭포에 세웠다.

© 제주신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